

-(으)나

~지만, ~(으)나 — 문어체

-지만의 문어적 짝입니다. 뜻은 같지만 쓰이는 장면이 달라서, 듣기보다 읽을 때 훨씬 자주 만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나	가다 → 가나
자음으로 끝남	-으나	좋다 → 좋으나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나
과거	-았/었으나	갔으나
~하든 안 하든	-(으)나 안 -(으)나	오나 안 오나
구어 표현	-지만, -는데	좋지만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표준 규칙을 따르며 ㄹ은 탈락합니다: 만들다 → 만드나. 시제는 앞에 붙습니다: 갔으나, 좋았으나.

이 어미는 글— 보고서, 기사, 공식 발표 — 에 속합니다. 대화에서는 딱딱하게 들리며, 실제로 말할 때는 -지만이나 -는데를 씁니다.

알아 둘 만한 두 번째 용법이 있습니다. 같은 동사를 긍정과 부정으로 반복하면 ‘~하든 안 하든’이라는 뜻이 됩니다. 비가 오나 안 오나 갈 거예요. 이 용법은 고정된 표현으로 구어에서도 씁니다.

문장 첫머리에 오는 접속어 그러나도 알아 두십시오. 하지만의 문어적 표현이며 같은 어미에서 나왔습니다.

■ 예문

- 1 가격은 비싸나 품질이 좋다.
- 2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다.
- 3 그 계획은 좋으나 비용이 문제다.
- 4 이 제품은 국내에서 만드나 해외에서도 판매된다.
- 5 비가 오나 안 오나 경기는 열립니다.
- 6 노력했다.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.

■ 비교

-지만
뜻은 같고 문체가 다릅니다. -지만은 어디에서나 쓸 수 있지만, -(으)나는 말할 때 격식적이거나 예스럽게 들립니다.

비싸지만 좋아요. (구어) / 비싸나 품질이 좋다. (문어)

-(으)ㄴ/는데
-는데는 배경을 깔고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, -(으)나는 단순한 대립을 나타냅니다. 문어에서는 분명한 대조를 위해 뒤의 것을 선호합니다.

비싼데 좋아요. (비싸긴 한데 좋다) / 비싸나 좋다. (비싸지만 좋다)

-(으)나 -(으)나
부정과 겹쳐 쓰면 ‘~와 관계없이’라는 뜻이 됩니다. 단독 어미는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이 패턴은 일상 대화에도 남아 있습니다.

가나 안 가나 상관없어요. / 좋으나 싫으나 해야 돼요.

■ 주의

- ✗ 국내에서 만들으나 해외에서도 판매된다.
- 국내에서 만드나 해외에서도 판매된다.
- ㄹ로 끝나는 어간은 -(으)니까, -(으)세요와 마찬가지로 이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이거 비싸나 맛있어요.
- 이거 비싸지만 맛있어요.
- (으)나는 편한 대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. 말할 때는 -지만이나 -는데를 쓰십시오.
- ✗ 여러 번 시도하나 실패했다.
-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다.
- 아서와 달리 이 어미는 시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이미 끝난 과거의 시도에는 시제를 붙여야 합니다.